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과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¹⁾

문 유 경 (연구위원)
주 재 선 (전문연구원)
전 기 택 (위촉연구원)

<목 차>

- I. 서론
- II. UN과 선진국의 젠더통계 현황
- III. 『여성통계연보』 체계 개편
- IV.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활성화 방안
- V. 결론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여성개발원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남녀의 불평등한 현실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는 젠더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1994년 이후 매년 『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여성통계연보』는 여성연구자들과 여성정책입안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젠더 통계 간행물로 자리 잡아 왔다. 반면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 여성정책의 전문화 등 최초 발간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 개편과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여성통계연보』가 그 수록내용과 이용 행태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

1) 이 논문은 2001 연구보고서 230-18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과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을 발췌·요약한 것임.

1) 이 논문은 2001 연구보고서 230-18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과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을 발췌·요약한 것임.

다고 판단하여 개선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회변화와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여성통계연보」의 통계체계를 개편하고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게재내용을 이원화하여 각 매체의 특성을 살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여성통계연보」는 현재의 두꺼운 분량을 지양하고 되도록 간결한 형식으로 바꾸어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인터넷 「여성통계」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필요에 맞게 발췌하여 가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B.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가. UN과 주요선진국의 젠더 통계 생산현황을 검토한다. 즉 UN의 젠더통계 관련 주요 권고안과 생산물을 살펴본 후,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4개국의 젠더통계 생산 현황을 소개한다.
- 나.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통계연보」의 전체 및 부문별 개편안을 제시한다. 또한 현재 생산 가능한 통계를 중심으로 부문별 통계 및 지표항목을 선정하고, 향후 개발이 필요한 항목을 제시한다.
- 다. 「여성통계연보」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젠더 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가. 전문가 자문회의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자문회의에서는 「여성통계연보」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및 인터넷 「여성통계」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부문별로 본 연구진이 제시한 개편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나. 설문조사는 「여성통계연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197명의 응답이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일시는 2001년 12월 13일에서 20일까지이며, 조사문항은 전반적인 이용현황, 「여성통계연보」 만족도, 「여성통계연보」 추가 통계,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실태, 인터넷 「여성통계」 만족도, 일반적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자	153	77.7
	남자	44	22.3
	전체	197	100.0
연령별	20~29세	16	8.2
	30~39세	64	32.7
	40~49세	89	45.4
	50~59세	24	12.2
	60세 이상	3	1.5
	전체	196	100.0
직업별	공무원	88	44.7
	연구원	46	23.4
	교수	37	18.8
	사무직원	13	6.6
	학생	10	5.1
	자영업	1	0.5
	여성운동가	1	0.5
	단체장	1	0.5
	전체	197	100.0

C. 연구의 한계

1. 이 연구는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과 활용에 중점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우리나라의 젠더 통계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전반적인 생산현황을 폭넓게 다루지 못하였다.
2. 젠더통계로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되고 있지 않는 개별 통계를 통계 체계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별도 제시하였다.
3. 「여성통계연보」의 이용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선정이 임의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조사대상자 모집단이 지극히 적어 표본추출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추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목적에 따라 미사용자가 제외되어, 「여성통계연보」의 미사용 이유가 조사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II. UN과 선진국의 젠더통계 현황

A. 젠더통계 생산의 국제적 동향 : UN을 중심으로

1. 젠더통계 관련된 UN의 주요 권고안

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

1975년 유엔의 세계여성회의는 젠더통계 개발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의 행동강령 제161절에서 제173절까지는 ‘조사연구, 자료수집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61절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상태에 대한 국내, 지방, 국가 간 차원의 조사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에 우선권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자료와 통계가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정책수립과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제163절은 여성의 경제활동의 공헌에 대한 과소평가를 언급하고 있고, 제164절은 가구주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 제165절은 국가간의 비교의 필요성에 대해, 제168절은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제170절은 여성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관련되는 사회경제적 지표의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 1980년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

1980년 유엔 여성 10년의 중간 점검과 후반기 계획을 목표로 세계여성회의가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행동강령 역시 여성에 관한 통계의 개선이 한층 구체적으로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분석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고용과정, 예를 들어 평가, 노동, 일, 고용, 사회적 생산성, 가구, 가족 등에 대한 조사기법과 개념들을 재검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제206절에서 제209절까지는 젠더통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욱 다양해진 동시에 체계를 잡아가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인 관련 통계의 성 및 연령별 수집, 편집, 분석, 제시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 부문의 참여를 포함한 경제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기여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계정에 포함된 무보수 노동과 포함되지 않은 무보수 노동 모두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적절한 측정 방법으로 시간사용 연구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빈곤, 보건 서비스, 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자료 수집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북경 행동 강령 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장애물에 대한 점검을 위해 조직된 “2000년 북경 + 5” 유엔여성특별 총회에서도 젠더통계와 관련된 북경 행동 강령의 수준을 넘어서는 권고안들이 채택되었다. 제64조에서는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장, 단기 목표와 측정 가능한 목표의 기준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후속 장치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통계 사무의 지원과 관련하여 제92조(a)에서는 국제 협력체가 무엇보다 우선 국가 통계 사무소에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 인지적 분석과 통계의 개발 및 활용에 노력하는 지역과 국가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80조에서는 분석틀, 가이드라인과 기타 실천적 수단과 지표를 성 주류화의 가속화에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제77조(b)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법 집행의 추세를 점검하기 위해 범죄 통계의 편집과 발간을 포함하는 여성 폭력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여성 폭력 측정 방법과 지표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발전을 제안하고, 기존 통계에 기반해서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제93조(d)에서는 원주민 여성과 관련된 자료 수집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Hartl, 2000).

2. UN의 주요 통계 생산물

1984년에 유엔에서 발간한 두 보고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여성 통계에 대한 필요성의 확산에 따른 결과이다. 첫 번째 보고서 *Compiling Social Indicators of the Situation*은 새로운 통계자료의 개발보다는 각국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보고서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은 우선 현재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통계자료들의 개념 및 수집 방법들이 여성의 삶의 상태를 나타내기에 편파가 없고 적합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통계 용어 및 생산관행에 대한 가능한 개선점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 발간된 *Handbook for Producing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on Women and Men*은 양성통계간행물의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양성통계간행물 발간 기획 및 업무 구성, 통계 수집 및 분석, 통계표 작성 예, 자료 제시 및 도표 구성 방식, 출판 및 배포 등 발간 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UN은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여성의 현황과 지위를 통계로 제시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유엔 통계국 사회주택통계부에서 발간하는 *The World's Women : Trends and Statistics*가 대표적이다. 1991년 *The World's Women 1970-1990 : Trends and Statistics*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1995년판과 2000년판을 발간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세계 여성들의 현황과 지위 변화를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2000년판을 중심으로 *The World's Women : Trends and Statistics*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은 해당 분야의 중요한 경향들과 특징들을 국가별, 지역별로 보여주는 도표 및 분석 내용과 함께 주요한 통계와 지표를 수록한 통계표를 해당 장의 후반부에 실고 있다. 또한 여성과 관련된 주요한 경향을 부각시키는 통계와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계와 관련된 정의, 자료원, 주요 사례 등과 같은 참고사항을 수록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책자의 배포는 주로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요한 분석 결과 및 통계표 등 본문의 일부를 UN 통계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²⁾

*The World's Women : Trends and Statistics*의 근간이 되는 것이 UN 통계국의 여성 관련 통계 데이터 베이스인 *Women's Indicators and Statistical Database(Wistat)*이다.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 관련 통계 데이터 베이스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데이터 베이스 설계 기술 및 소형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1984년 UN 사무국 통계사무소는 UNPFA(UN Population Fund)을 지원을 받아 *Wistat* 개발을 시작하여 1987년에 완료한다.³⁾ 그 결과 1988년 5월 초판인 United Nations Women's Indicators and Statistics Microcomputer Data Base Version 1이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4판(*Wistat 4*)이 제작, 배포되고 있다. 초기에는 디스켓을, 그리고 3판 이후에는 CD-ROM의 판매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일부 통계와 지표가 UN 통계국 종합 데이터 베이스(UN SD Common Database)를 통해 수록 통계 및 지표의 접근 역시 가능하다.⁴⁾ UN 통계국은 *Wistat*를 바탕으로 중요한 여성 관련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89년에 발간된 *Compendium of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2) [http : //www.un.org/Depts/unds/ww2000/index.htm](http://www.un.org/Depts/unds/ww2000/index.htm) 참고.

3) *Wistat* 개발과정에 대해서는 UN(1989, 1990) 참고.

4) UN SD Common Database는 [http : //unstats.un.org/cdb_help/cdb_quick-start.htm](http://unstats.un.org/cdb_help/cdb_quick-start.htm)참고.

*Situation of Women 1986*과 1991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The World's Women* 시리즈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Wistat의 개발 및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에서 여성 관련 통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Handbook for National Statistical Data Bases on Women and Development*(1990)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최신판인 Wistat 4는 총 77종의 각종 통계 및 지표를 9개 주제별로 수록하고 있다. 특히 206개 국가 및 지역의 젠더, 인구, 사회 발전과 관련된 통계 및 지표와 함께 가정 폭력, 출산 및 출산권(reproductive rights)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⁵⁾

C. 주요 선진국의 젠더통계 생산 현황

1. 스웨덴

스웨덴 통계청은 “스웨덴의 여성과 남성. 현상과 통계”(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를 정기적(3년마다 스웨덴어로)으로 발간하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은 이 책을 1984년 최초로 스웨덴어판으로 공개한 이후 1985년 나이로비에서 영문 개정판을 공개함으로써 젠더통계간행물 생산에 있어서 선두 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UN, 2000). 이후 1990년, 1995년, 1998년과 2000년에 영문판을 발간하였다. 2000년 영문판의 경우, 11개 분야의 총 122개의 주요 그림 및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스웨덴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⁶⁾

1997년 6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여러 관리직급의 남녀 관리자에 대한 심층 연구서인 “상위직의 여성과 남성. 1995년 인원과 임금 현황”(Women and Men at the Top. Facts on Numbers and Salaries 1995)이 스웨덴 노동부 평등과(the Equality Affairs at the Ministry of Labour)의 위탁을 받아 발간되었다.

이와 함께 1996년 발간된 *Engendering Statistics : A Tool for Change*는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젠더통계 훈련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스웨덴 통계청이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기구(SIDA)의 지원을 받아 젠더통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가는 아프리카 13개국, 아시아 8개국, 라틴 아메리카 4개국, 유럽 7개국 등이다(Statistics Sweden 1998; Statistics Sweden 2000).⁷⁾

한편 스웨덴 통계청은 스웨덴의 도시별 성 평등 지수를 산출하여 그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제시하는 “Equal X”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1월 최초의 Equal X 버전이 공개된 이후, 현재는 도시별 성 평등 지수와 다음과 같은 표준 변수의 도시별 상황을 지도와 표를 통해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⁸⁾

5) Wistat Version 4의 특징과 구체적인 수록 내용은 UN 통계국의 Wistat 홈페이지 <http://www.un.org/Depts/unsd/gender/wistat/wistat.htm> 참고. UN 통계국과 함께 UN 산하의 각 지역 위원회에서도 젠더통계간행물 및 젠더 통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ESCWA, ESCAP, ECE 등이 발간한 젠더 통계 간행물과 ECE의 “변화 점검을 위한 젠더통계 웹사이트”(“Gender Statistics website for monitoring change”)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고서 참고.

6) <http://www.scb.se/eng/befovalfard/levnadsforhallanden/jamstalldhet/publikation.asp> 참고.

7) 이들 가운데 22개 국가가 “Women and Men in X-country. Facts and Figures 19.”라는 제목으로 해당 국가의 남녀 상황을 보여주는 소책자 형태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였다(Statistics Sweden, 2000).

스웨덴의 중요한 양성통계는 1983년 스웨덴 통계청의 독립 부서로 설치되어 1999년 인구 분석과에 통합된 양성통계과를 중심으로 조사, 발간되고 있다.

2. 핀란드

핀란드 통계청은 1980년과 1984년에 여성 관련 통계간행물인 *Naisten asema*⁹⁾를 각각 핀란드어판으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1994년과 1995년에 *Women and Men in Finland*를 핀란드어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한 이후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2001년에 동일한 제목의 젠더통계간행물을 발간하였다.

또한 리플릿 형태의 간행물인 *Facts and figures about women and men in Finland*를 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인구, 가족, 교육, 취업, 소득, 사회참여 등 6개 분야 총 23개의 그림과 통계표를 공개하고 있다.

핀란드 통계청의 양성 통계업무는 2001년 현재 인구통계과에 배치된 1명의 선임 통계원과 2명의 보조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3. 캐나다

캐나다 통계청은 1985년부터 5년 주기로 *캐나다의 여성(Women in Canada)*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최신판이 발간되었다. 이 통계자료는 캐나다 통계청과 기타 자료원의 관련 통계를 편집한 것으로, 캐나다 인구의 특징을 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2000년판의 경우 본문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5개의 도표와 190개의 통계표를 통해 캐나다 여성의 지위를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문의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민 여성, 주요 소수민족 여성, 원주민 여성, 여성 노인 등 개별 여성 집단의 주요한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¹⁰⁾ 그리고 5장 유급 및 무급 노동(Paid and Unpaid Work) 부문의 내용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¹¹⁾

이 외에도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여성 지위부와 함께 1998년 *여성 자료 검색 : 캐나다 통계청 주요 자료원 가이드(Finding Data on Women : A Guide to Major Data Sources at Statistics Canada)*라는 참고문헌을 발간하였다¹²⁾. 그리고 1997년에는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여성 지위 담당 부서의 의뢰에 따라 보고서 *남녀경제평등지표(Economic Gender Equality Indicators)*를 발간하였다.

8) 스웨덴 통계청의 “Equal X”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h.scb.se/SCB/BOR/SCBBOJU/jam_hm_en/index.html 참고. 노르웨이 통계청 역시 도시별 성평등 지수를 공개하고 있다(<http://www.ssb.no/emner/00/02/10/likekom/> 참고). 1999년 노르웨이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양성 평등 촉진에 있어서 지역 정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노르웨이 지역별 성평등 지수(a 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의 개발과정과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Randi Kjeldstad and Jan Erik Kristiansen(2000) 참고.

9) 영문으로는 Women's position에 해당.

10) Women in Canada 2000의 구성은 <http://www.statcan.ca/english/IPS/Data/89-503-XPE.htm> 참고.

11) 2001년의 갱신된 내용은 <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89F0133XIE/free.htm> 참고.

12) 이 외에 캐나다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은 2000년 27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의 Women and Canada : A Statistical glance를 발간하였다(<http://www.swc-cfc.gc.ca/> 참고).

4. 아이슬란드

1994년과 1997년, 특히 양성 통계와 관련된 소책자 *아이슬란드의 여성과 남성 (Women and Men in Iceland)*이 발간되었다. 그것은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관련된 중요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 의료, 교육, 고용, 임금과 수입 그리고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사회의 여러 측면을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포괄한다. 소책자는 아이슬란드어판과 영문판이 있다. 2000년 현재 신판이 준비중이며, 1997년판의 주요 통계표 및 그림이 아이슬란드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¹³⁾

그리고 아이슬란드 통계청은 다른 북유럽 국가의 통계 부서와 공조하여 1985년부터 *북유럽 국가의 여성과 남성. 현상과 통계(Women and Men in the Nordic Country. Facts and Figures)*를 북유럽 각료 회의(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의 지원으로 1998년, 1994년 그리고 1999년 세 번에 걸쳐 발간하였다.

위와 같이 UN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젠더통계 간행물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젠더통계 간행물의 특징

	The World's Women : Trends and Statistics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Women in Canada : a gender-based statistical report	Women and Men in Finland	여성통계연보
최초발간 년도	1991	1984(1985) ¹⁾	1985	1994(1995) ¹⁾	1994 ²⁾
발간주기	5년	3년	5년	4년	1년
발간부서	UN 통계국 사회 및 주택통계부	스웨덴 통계청 양성통계부	캐나다 통계청 주택, 가족 및 사회통계부	핀란드 통계청 인구통계부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
배포형태	책자/인터넷a, b ³⁾ /CD-ROM (WISTAT)	책자/인터넷a, c ³⁾	책 자	책자/인터넷a	책자/인터넷b
수록분야 ⁴⁾	인 구	인 구	인 구	인 구	인 구
	가 족	보 건	가 족	가 족	가 족
	보 건	교 육	보 건	교 육	교 육
	교육 및 정보통신	시간사용	교 육	고 용	경제활동
	노 동	육 아	유급 및 무급노동	수 입	보 건
	인권과 정치참여	노인 개호	수입 및 소득	사회참여	복 지
		취 업	주택 및 가구설비		정치 및 사회참여
		임 금	치 안		문화 및 정보
		수 입	이민 여성		안 전
		폭력과 범죄	주요 소수민족 여성		국제 비교
		영향력과 권력	원주민 여성		특 집
			여성 노인		

주 : 1. 해당 통계간행물의 영문판 발간년도.

13) <http://www.statice.is/stat/konur1.htm> 참고.

2.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라는 제목으로 1986년과 1994년 2회 발간 후, 1994년 “여성통계연보”로 명칭 변경과 함께 매년 발간.
3. 배포형태의 인터넷 a는 해당 통계간행물의 본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b는 해당 통계간행물에 수록된 통계 또는 지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가 재가공 할 수 있는 경우, c는 해당 통계간행물 이외의 양성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 : 스웨덴 통계청의 “Equal X,” 노르웨이 통계청의 “Gender Equality Index” 등).
4. 각 통계간행물의 수록분야는 2000년판을 중심으로 구성.

Ⅲ. 『여성통계연보』 체계 개편

A. 국내의 젠더통계와 『여성통계연보』

1. 국내의 젠더통계 현황

가. 젠더통계 생산에 대한 정책

젠더통계 생산에 대한 기본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에는 성별통계작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에서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부의 성격 상 여성과 관련된 모든 통계생산을 직접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계청과 각 부처의 통계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성 인지적 통계의 구축」,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 행정부문」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 부처에서 통계를 생산할 때 성 인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정부 통계의 성별 분리 현황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부통계의 성별분리현황을 분석하면, 대부분의 조사통계시 조사표에 성별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발간단계에서는 모든 통계를 성별 분리하여 발표하기보다는 연령, 지역 등 다른 독립변수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여 일부 범위에 한정하여 분리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에 통계청과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는 6개부처의 통계조사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광공업 통계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등 산업조사에서 대표자와 종사자에 대한 성별 문항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성별 문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유경, 1999). 그러나 발간된 통계표 중에서 성별로 분리되지 않은 통계표가 상당량 보여지는데 이는 편집과정에서 담당자가 통계표의 내용상 성별분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문별 생산현황을 보면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등의 국가운영에 필요한 기초통계는 비교적 내용이 풍부한 편이나 사회복지, 범죄, 정치참여, 사회참여 등 삶의 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들이 부족한 편이다.

다. 젠더통계 간행물 발간현황

우리나라에서 젠더통계로 가장 먼저 발간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86년에 발표한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이다. 1993년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2차 발간 이후, 1994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의 명칭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발표된 주요 젠더통계 간행물로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총 3번 발간한 「여성의 사회활동 실태 국제비교」와 199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 있다.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은 여성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직접 생산된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미발표된 최신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취급하고 있는 통계내용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 외에 노동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여성과 취업」과 행정자치부의 「여성과 공직」, 여성부의 「여성백서」, 서울시의 「서울여성백서」 등은 통계간행물은 아니지만 부처내 내부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무부의 「법무부 여성통계」는 법무부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발표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성별비교가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여성부의 「통계속의 여성의 생활과 지위」, 보건복지부의 「여성 보건복지 : 현상과 통계」 등은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가공함으로써 젠더통계의 보급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농림부는 농촌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촌여성의 복지지표를 현재 개발 중에 있다.

B. 「여성통계연보」 전체 체계의 개편

이 절에서는 「여성통계연보」 이용자 실태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통계연보」의 전체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1. 『여성통계연보』의 부문별 이용 현황

『여성통계연보』 이용자의 부문별 이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부문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응답자 197명중 84.8%인 167명이 ‘이용한 적이 있다’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육, 인구, 가족 복지부문의 순서로 모두 70%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이용률이 낮은 부문은 안전으로 29.4%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문별로 이용률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문별 통계의 게재량의 차이가 있어 경제활동 부문의 통계가 가장 풍부한 반면 안전부문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계들의 생산이 빈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관심분야를 반영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표 3> 참고).

<표 3> 부문별 이용경험률

단위 : 명, %

		이용경험자수	이용경험률	이용경험률 순위
인	구	150	76.1	3
가	족	147	74.6	4
교	육	156	79.2	2
경	제	167	84.8	1
보	건	104	52.8	9
복	지	146	74.1	5
정	치	139	70.6	6
문	화	110	55.8	8
안	전	58	29.4	10
국	제	137	69.5	7

이러한 경향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문 상위 3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경제활동부문은 112명이 선택하여 다른 부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차순위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여 2순위가 인구부문, 3순위가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의 순서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표 4> 참고). 이 외에 취약한 부문으로는 국제 비교, 문화 및 정보, 안전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표 4> 많이 사용하는 부문

단위 : 명, %

	빈 도 수	비 율	순 위
인 구	74	13.9	2
가 족	65	12.2	5
교 육	58	10.9	6
경 제 활 동	112	21.0	1
보 건	14	2.6	9
복 지	67	12.6	4
정치및사회참여	71	13.3	3
문 화 및 정 보	21	3.9	8
안 전	4	0.8	10
국 제 비 교	47	8.8	7

다음은 현재의 10개 부문 외에 더 추가해야 될 부문을 조사한 결과이다(<표 5> 참고). 이 결과들은 특정집단에 대한 통계,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등으로 그 분류가 가능해진다. 이 중 특정집단에 대한 통계는 젠더통계의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통계연보』에서 취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5> 추가해야 될 부문

분 류	추가해야 될 부문
특정 집단 통계	여성 비정부조직의 별도 통계 여성 자원봉사자 여성 농업인 관련 통계 청소년 부문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 내부의 변화 성관련 문제 정보화 부문 환경
기타	보육관련 자료 제도 및 정책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통계연보』 전체 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결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제, 교육, 인구부문은 관련 부문 통계생산량이 풍부하므로, 모두 게재하기보다는, 성별비교가 의미를 갖고있는 통계를 선별해서 게재하고, 기본적인 통계는 원래의 통계발간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내용이 빈약하고, 잘 이용되지 않는 국제비교, 안전, 문화 및 정보 부문의 통계는 적극적으로 통계를 발굴하여 새로운 통계를 보완하고, 현재 게재가 불가능한 내용은 향후 생산을 제안한다.

셋째 사회변화에 따른 성별 차이 혹은 차별의 상태와 문제점의 진단을 위해 각 부문별 개편시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넷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통계수치보다는 여성비율이나 남성대비 여성

의 상황 등 가공, 편집된 지수 혹은 지표형태의 통계를 제공한다.

다섯째 객관적 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불평등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주관적 지표를 보충한다.

C. 부문별 체계 개편

이 절에서는 개별부문의 개편안을 개편방향,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려 한다.¹⁴⁾

1. 인구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인구의 정태성과 동태성을 고려하여 정태성을 보여 주는 관심영역으로 인구규모, 인구구성, 인구분포, 동태성을 보여주는 관심영역으로 인구이동, 출생, 사망영역을 제시함.
- 출생과 사망의 경우 인구변화와 관련되는 기본통계는 인구부문에, 건강수준과 관련되는 세부통계는 보건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개편내용

- 관심영역을 기존 3개에서 6개의 영역으로 나누었고, 세부관심영역은 6개에서 11개로 재분류하여 개별지표의 경우 12개에서 18개로 증가함.
- 첫째, 관심영역 중 ‘인구규모와 이동’을 ‘인구규모’와 ‘인구이동’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 ‘인구분포’와 ‘사망’을 새로운 관심영역에 포함시킴.
둘째, 인구이동은 해외 이민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세부관심영역을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으로 세분하고, 인구분포는 지역별인구와 도시인구(수도권인구)의 두 부분으로, 그리고 사망은 사망률을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함.
셋째, 추가시킨 개별지표를 보면, 인구규모에서 장래추계인구를, 인구분포에서 시도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 구성비율, 그리고 인구이동에서 해외 이주허가자 수를 포함시킴.

2. 가족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다양한 가족 및 가구형태의 파악을 위해 미혼모, 동거가족 혹은 대안가구에 관한 통계를 추가함. 그러나 현재 일정 수준이상의 통계가 없으므로 향후 통계 개발을 시도함.
- 현재 혼재되어 있는 가구와 가족통계를 가능한 분리하고, 제목을 가구 및 가족으로 개명.
- 일반적인 여성가구주 통계보다는 특정 형태의 여성가구주 편모(혹은 편부)가구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통계가 필요.

14) 부문별 여건의 변화, 국제적 경향, 기존 체계, 새로이 개발이 필요한 통계 항목의 생산 방안 및 산식 등은 보고서의 제3장을 참고.

- 변화하는 가족관과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의식변화를 보여주는 주관적 지표 추가.

나. 개편내용

- 관심영역은 가구,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생활의 총 3개로 구분하였음.
- 관심영역 ‘가구’에서는 세부관심영역에 ‘가구규모’를 추가하여, 일반가구수와 평균가구원수가 개별지표로 포함하고 가족생활에 있던 거주형태를 ‘주택소유형태’로 개칭하고 가구부문으로 이전시킴.
- ‘가족형성 및 해체’는 ‘자녀출산’을 ‘혼인’과 ‘이혼’ 사이에 삽입하여 가족의 단계별 특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관심영역에 생애주기를 새로 삽입하여 한 사람의 일생과 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가족생활’에 ‘가족관’, ‘가족활동’, ‘노인부양’의 3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리함. 가족관은 모두 주관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결혼, 이혼, 재혼, 호주제, 이상자녀수 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 기존에 있던 가구소득의 경우 경제활동 부문에 소득영역으로 이전하여 세부관심영역에서 제외하였음.
- 개편된 가족부문은 3개의 관심영역, 10개의 세부관심영역, 44개의 개별지표로 구분하였음.

3. 교육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추가.
-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증가와 이에 대한 성차의 반영.
- 공교육외에 사교육, 대안교육 등에 대한 현황을 반영하고, 공교육 이탈학생에 대한 규모와 문제점 및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
-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의 이직률 증가 문제 반영.

나. 개편내용

-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자원’, ‘교육의 결과’라는 3개의 관심영역과 총 8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별지표를 해당되는 세부관심영역에 추가함.
- 과학기술분야의 여학생참여현황을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분포 및 계열별 취업률 분포 중 자연계를 이학계/공학계/가정계로 세분화함.
- 학위취득자수 및 인구 만 명당 학위취득자 통계 중 학위취득자 계열별 분포 추가함.
- 학생의 중퇴율과 교사의 이직 및 퇴직률을 추가함.
- ‘6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국민의 학력분포’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함.
- 사회교육기회의 영역에 ‘사이버대학’현황을 추가함.
-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산정 방식을 현재의 방식에 하나를 더 추가함.
현재 : 취학률 = $\frac{\text{각급학교 학생수}}{\text{각급학교 적령인구}} \times 100$
추가 : 취학률 = $\frac{\text{각급학교 적령인구 학생수}}{\text{각급학교 적령인구}} \times 100$
- 학력별 평균임금차를 여자 고졸임금을 100으로 해서 작성함.
- 교육행정결정에의 참여를 보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 성별분포를 추가함.

4. 경제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여성실업의 특성을 밝히고 정책화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게재함.
- 여성취업지원정책의 활용도를 파악하여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 불안정성 추세를 보여주는 통계를 개발하도록 함.
- 소득부문을 새로 신설하여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소득관련 젠더통계자료 게재가 가능할 경우 보충함.

나. 개편내용

- 전체적으로 기존의 관심영역 6개, 세부관심영역 11개, 개별지표 24개에서 관심영역 7개, 세부관심영역 12개, 개별지표 32개로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 규모 및 특성’의 개별 하위지표로 ‘잠재실업자 및 실업률’을 성별 연령계층별

로 발표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개별 하위지표로 ‘비구직이유’를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로 다룸.

-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의 하나인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의 사용률을 추가함.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사용률 통계작성은 가능하나 민간부분은 어려움.
- 관심영역에 소득부문을 새로 신설하고, 개별지표로 ‘월평균가구소득’과 ‘가구의 소득기여도’를 추가하고, 주관적 지표로서 ‘소득계층의식’을 추가함.
- 관심영역중 ‘노사관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으로 이전함.
- 여성경제인 지원을 위해 사업체대표자의 성별 분포통계를 추가함.

5. 보건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암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암 유병률과 사망률, 주요 3대 암 등에 대한 현상과 예방활동에 대한 통계를 취급.
- 건강한 삶의 유지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 ‘건강수명,’ ‘암 수진율,’ ‘비만율’ 등 건강관련 지표를 추가함.

나. 개편내용

- 관심영역은 5개를 그대로 두었지만, 세부관심영역의 경우 건강상태의 관심영역을 ‘영양섭취’와 ‘개인 건강평가 및 관리’로 세분함.
- 개별지표의 경우 주관적 지표 2개와 객관적 지표 11개 등 총 13개 지표를 추가하였음. 추가된 지표를 보면 주관적 지표로서 ‘금연에 관한 견해’와 ‘금주에 관한 견해’를 포함시켰고, 출산부분에서 유배우부인의 임신중절형태와 ‘제왕절개실시율’을 추가하였음.
- ‘사망’세부관심영역에 성별 암사망률을 추가하고, ‘개인의 건강평가 및 관리’에 여성 3대암(유방암, 자궁암, 위암) 수진율 등을 추가하는 등 암 관련 통계를 강화함.
- 상병의 세부관심영역 중 ‘재해, 장애 및 질병’을 ‘질병 및 재해’로 수정한 후 ‘유병률이 높은 직업관련질환’과 ‘주요 성인질환 유병률’을 포함하였음.
- 건강상태부분을 강화함. 여성의 수명이 남자보다 길게 나타나 삶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우위에 있으나, 남자에 비해 여성의 상병률이 높아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열등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기대여명 외에 ‘건강수명’을 추가하고 ‘체격’세부관심영역에서는 BMI(신체질량지수)를 추가함. 비만을 측정지수로서 WHR(Waste- heep ratio)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통계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통계수집이 용이하고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BMI를 사용함.
- 개별지표 중 ‘등록장애인 분포’는 보건의 상병 영역에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복지부분으로 이전함.
- 세부관심영역으로 ‘정부의 보건정책’을 신설하고 대표적인 통계로서 ‘모자보건사업 실적’을 추가함.

6. 복지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4대보험(공적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기본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4대보험에서의 성별 수급현황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함.
-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통계연보』의 생활보호관계 통계를 개정된 법의 체계로 전환.

나. 개편내용

- 공적연금에 대한 수급현황 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성별 수급현황 중 현재 가능한 것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급여현황에 대한 통계를 추가함.
-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에 맞추어 출생급여수당과 조건부 급여에 대한 성별, 연령별 수급자 혹은 수급액 현황을 제시.
-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서비스 건수계제.

7.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의 보직과 직급에 관한 통계를 취급하고, 대표적 육성정책인 여성채용목표제의 효과를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통계를 포함.

나. 개편내용

- ‘행정참여’관심영역에 ‘부처별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합격자 현황’을 게재하여, 동 정책의 효과를 확인.
- ‘행정참여’의 ‘정책결정참여’ 세부관심영역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상설위원회의 여성비율’을 포함하여 입법과정에서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여줌.

8. 문화 및 정보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문화의 주요증진과 여성의 적극적인 문화생산활동에 대한 통계의 반영
- 여가와 자기개발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성별 수혜현황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지표 설정.

나. 개편내용

-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성별 여가시간 조사결과를 추가함. 향후 가능하면 여가시간의 활용에서의 성별 차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려 함.
- 문화의 적극적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문화예술이 참여현황을 추가함.
- 정부의 정보화 추진정책에 대한 남녀수혜자 수의 비교를 포함하여 정책결과의 측면에서의 성별 평등성을 추구함.

9. 안전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성폭력,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통계를 발굴, 게재하도록 함.

나. 개편내용

-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자료를 추가함.
- 성폭력, 가정폭력에 연령별 발생률 또는 피해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추가, 공식적 자료가 없을 경우 신뢰할 만한 민간자료를 발굴하여 대치하고 향후 정부의 공식통계자료 개발을 유도함.

10. 남북한 비교부문 신설안

-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등 각 부문별 기본통계를 게재함.

11. 국제비교부문 체계의 개편안

가. 개편방향

-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관련된 통계의 국제비교를 추가함.

나. 개편내용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지원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률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을 도모함.

IV.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활성화 방안

A.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자 실태 분석

1. 『여성통계연보』의 이용현황

가. 이용 정도와 용도

『여성통계연보』의 이용 정도를 보면, 1년에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38.7%이고 한 달에 1회 이상 본다는 응답자는 27.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연구원과 교수집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공무원 집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통계연보」의 작성목적이 여성관련 연구자와 여성정책입안자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임을 고려하면, 공무원 집단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6> 성별, 직업별 『여성통계연보』 이용정도

		단위 : (%)		
항 목	구 분	한 달에 1회 이상	세 달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성 별	계	27.3	34.0	38.7
	여 자	28.7	34.7	36.7
	남 자	22.7	31.8	45.5
직업별	공 무 원	20.7	36.8	42.5
	연구 원, 교 수	35.8	32.1	32.1
	기 타	23.1	30.8	46.2

주 : 기타는 학생, 사무직원 등을 포함.

『여성통계연보』의 사용용도를 보면 연구·학술·학습 활동과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의 용도가 각각 47.9%와 32.3%로 높았고, 사업 및 경영계획수립과 업무 외 개인적 관심사 때문이란 의견도 각각 12.0%와 7.8%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공무원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많았던 여성은 정책수립 및 평가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연구·학술·학습활동 등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예상했던 것과 같이 공무원의 경우 정책수립 및 평가(63.5%)의 용도로, 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학술·학습활동(87.8%)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7> 『여성통계연보』 사용용도

단위 : (%)

항 목	구 분	정책수립 및 평가	연구·학술·학 습활동	사업 및 경영계획수립	업무외 개인적인 관심
성 별	계	32.3	47.9	12.0	7.8
	여 자	62.8	14.0	11.6	11.6
	남 자	23.5	57.7	12.1	6.7
직업별	공 무 원	63.5	7.1	20.0	9.4
	연구원, 교수	6.1	87.8	4.9	1.2
	기 타	12.0	56.0	8.0	24.0

주 : 기타는 학생, 사무직원 등을 포함.

나. 『여성통계연보』의 장점

「여성통계연보」 이용자들은 다른 통계에 비해 「여성통계연보」의 장점을 ‘남녀비교가 가능하게 만든 점’(62.2%)과 ‘여러 부문을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만든 점’(61.1%)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원래의 통계자료보다 구입이 쉬운 점과 여성의 시각으로 작성한 점에 대한 장점은 이용자에게 큰 장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여성통계연보』의 장점

단위 : (명, %)

	빈 도	비 율
여러 부문을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만든 점	118	61.1
남녀비교가 가능하게 만든 점	120	62.2
원래의 통계자료보다 구입이 쉬운 점	16	8.3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점	27	14.0
여성의 시각으로 작성한 점	1	0.5
전 체	193	100.0

주 : 중복응답임.

2.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현황

가. 사용정도

1998년부터 「여성통계연보」 보고서를 기반으로 매년 자료를 갱신하고 있는 인터넷 「여성통계」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여성통계연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즉, 「여성통계연보」보고서 이용자의 45.2%만이 인터넷 「여성통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고, 54.8%는 이용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직업별로는 공무원보다 연구원 및 교수들의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여성통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63.6%가 인터넷 「여성통계」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 ‘활자에 익숙하거나 책이 편리해서’가 13.1%,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11.1%로 응답한 반면, 인터넷 이용여건이 안되거나,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이유를 말한 응답자는 2%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여성통계」에 대한 홍보부족 및 보고서 형태의 인쇄물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인터넷 『여성통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있는 것을 몰랐음	인터넷 미숙	인터넷 이용 여건 안됨	활자에 더 익숙 /책이 편리	타홈페이지 이용(통계청)	출력의 번거로움	보고서 입수 용이	관심없음
전 체	63.6	11.1	3.0	13.1	2.0	2.0	1.0	4.0
여 자	61.7	11.1	2.5	14.8	1.2	2.5	1.2	4.9
남 자	72.2	11.1	5.6	5.6	5.6	0.0	0.0	0.0
공무원	59.1	11.4	2.3	15.9	4.5	2.3	0.0	4.5
연구원, 교수	64.9	8.1	2.7	16.2	0.0	2.7	2.7	2.7
기 타	72.2	16.7	5.6	0.0	0.0	0.0	0.0	5.6

나. 인터넷 『여성통계』의 선호도

인터넷 「여성통계」의 선호도는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89명(「여성통계연보」 이용자의 45.2%)의 응답자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먼저 두 매체 중 어떠한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가를 질문한 결과, 성별 차이 없이 「여성통계연보」책자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이 「여성통계연보」 책자 이용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성과 직업별로 보면 책자의 이용이 높은 집단은 남성과 연구원 및 교수집단으로 각각 60.0%와 61.9%로 책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여성 혹은 공무원의 경우 이들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0>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 중 주로 이용하는 매체

단위 : (%)

항 목	구 분	『여성통계연보』 책자	인터넷 『여성통계』	비슷하다
성 별	계	52.8	39.3	7.9
	여 자	50.0	40.6	9.4
	남 자	60.0	36.0	4.0
직업별	공 무 원	42.5	52.5	5.0
	연구원, 교수	61.9	26.2	11.9
	기 타	57.1	42.9	0.0

책자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78.3%의 응답자가 ‘인쇄형태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0.9%의 응답자는 ‘『여성통계연보』 책자가 인터넷 『여성통계』에 비해 빨리 갱신되기 때문’에, 6.5%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4.3%의 응답자는 ‘『여성통계연보』 책자가 ‘시계열 통계를 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으로 대답했다.

반면 인터넷 『여성통계』 더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료를 더 빨리 입수할 수 있어서’가 40.0%로 가장 높았고, ‘필요한 내용만 볼 수 있기 때문’이 34.3%, ‘통계내용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 25.7%로 나타났다.

C. 『여성통계연보』 및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1.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

『여성통계연보』를 이용해본 응답자는 『여성통계연보』의 품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용자의 64.8%가 『여성통계연보』의 품질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0.5%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보다 연구원, 교수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11> 『여성통계연보』 품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항 목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성 별	계	3.1	61.7	34.7	0.5
	여 자	4.0	62.4	32.9	0.7
	남 자	0.0	59.1	40.9	0.0
직업별	공 무 원	2.3	51.7	46.0	0.0
	연구원, 교수	5.0	70.0	23.8	1.3
	기 타	0.0	69.2	30.8	0.0

내용의 포괄성, 내용의 간결성, 성별 통계제시 정도,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 특집의 주제 선정 및 내용 등 수록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록내용의 포괄성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65.8%의 이용자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47.4%만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수록내용의 간결성과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에 관한 만족정도는 전반정도의 응답자가 만족하는데 그쳐서, 전반적인 만족정도에 비해 항목별 만족도는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여성통계연보』의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만족스런 부분은 발간주기(매우 만족 10.8%, 만족 58.2%)이며 다음으로 사용의 편리함(매우 만족 6.3%, 만족 52.3%), 통계의 정확성(매우 만족 3.4%, 만족 49.7%)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해서 언급했듯 통계의 신속성은 26.6%(매우만족+만족)의 이용자만이 만족하고 있었고, 용어해설과 구입의 용이함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39.6%와 44.8%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발간주기에 불만을 표시한 이용자에게 이용자들에 바람직한 발간주기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5.2%가 6개월의 주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고, 분기별로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도 2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여성통계연보』의 이용 경험자 가운데 인터넷 『여성통계』 이용 경험자에게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비율이 38.8%(매우 만족 포함)로서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에 비해 19.6%포인트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공무원이 연구원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 만족도

단위 : (%)

항 목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성 별	계	1.2	37.6	51.8	8.2	1.2
	여 자	1.7	35.0	53.3	8.3	1.7
	남 자	0.0	44.0	48.0	8.0	0.0
직업별	공 무 원	0.0	32.5	62.5	5.0	0.0
	연구원, 교수	2.6	44.7	39.5	10.5	2.6
	기 타	0.0	28.6	57.1	14.3	0.0

인터넷 『여성통계』의 전반적 만족도가 『여성통계연보』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수록내용의 만족도는 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수록내용의 포괄성을 보면 만족도가 44.7%로서 과반수 미만의 만족율을 보였고 51.8%는 보통을, 그리고 9.4%의 응답자는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외 다른 평가지표의 만족도를 보면 수록내용의 간결성 47.0%, 성별 통계제시 정도 51.9%,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 43.6%로서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에 비해 조금 낮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인 항목은 통계의 정확성으로 61.9%의 응답자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 53.1%에 비해 높은 만족비율로서, 인쇄본으로 발간된 『여성통계연보』가 재 수정하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 『여성통계』의 경우 수시로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 상대적으로 만족도를 보인 이유로 보인다.

다. 통계활용 디자인과 관련된 통계수치의 저장방법과 사이트 접속방법은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이용자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저장방법은 엑셀(Excel) 형태로 자료를 내려 받게 설계된 것과 전산 기기 교체로 인해 접속속도를 떨어지지 않게 유지했기 때문으로 본다. 통계의 신속성은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긴 하나 E-mail을 통한 질문 또는 건의 시 답변의 만족도와 더불어 불만요소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나타났다.

E. 여성통계 이용의 활성화 방안

『여성통계연보』 및 인터넷 「여성통계」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 시스템으로 전환

현재의 인터넷 「여성통계」의 갱신 방법은 「여성통계연보」가 발간된 후 이를 바탕으로 약 한달 반 정도의 수정기간을 통해 갱신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여성통계」가 일반 인터넷 통계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신속한 자료갱신이란 장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자료갱신을 위해 「여성통계연보」의 연구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여 수시로 최근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분기별로 나누어 인터넷 「여성통계」의 갱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연구자의 연구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줄 수 있을 것이다.

2. 발간 형태의 다양화

여성통계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해 발간 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전문통계 소책자와 핸드북의 형태를 「여성통계연보」와 병행하여 발간하는 것이다. 단, 발간주기는 그 목적에 따라 전문통계 소책자의 경우 1년에 2~3개 부문씩 생산하여 4년 주기로 10부문 모두를 발간하고, 핸드북의 경우 생산목적과 사용대상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생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통계 서비스 및 품질의 향상

여성통계 발간과 더불어 통계 서비스 및 품질 향상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사 결과 통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계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여성통계에 대한 문의점이나 문의 사항을 즉각 응답해 주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통계의 수정과 질문 사항은 「여성통계연보」담당자가 전담하고 이외 각 분야 통계에 대한 질문은 전공 연구자가 응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통계연보」의 정기구독회원과 구입자, 그리고 필수 배포처의 E-mail과 주소를 DB화하여 통계오류와 수정사항은 즉시 E-mail 혹은 전화, 편지 등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여성통계」의 경우 자료 갱신과 더불어 갱신 자료 목록을 통계 이용자에게 통보할 뿐 만 아니라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여성통계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통계연보」의 시의적절한 체계 개편과 아울러 「여성통계연보」 및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UN과 주요 선진국의 젠더통계의 제도적 장치와 주요 생산물을 분석한 결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젠더통계 생산을 위한 법령 제정과 더불어 독립적인 젠더통계 생산 담당 부서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젠더 통계 생산을 위한 법률적 근거만이 마련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젠더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통계청 내의 하부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주요 생산물 현황을 보면 여성의 지위와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통계 내용 외에 젠더통계 생산 방법 및 이용 방법 등 다양한 방면의 통계관련 책자가 발간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인구, 교육, 취업 등 기본 통계 이외에 보육아동, 성폭력, 가정 폭력 등 특수하게 여성과 관련되었거나 보고 통계로 파악이 어려운 통계 등을 자체 조사, 생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향후 여성 관련 통계 조사 및 생산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은 성별 불평등 현상을 성별비교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평등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젠더통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포괄성, 압축성, 간결성, 이해가능성, 시의적절성, 생산여부 등 통계책자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전체 체계면에서는 현재 10개 부문에서 ‘남북한 비교’부문을 새로 신설하여 11개 부문으로 확장하였다.

부문별 개편안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인구부문에서는 세부관심영역을 인구의 동태성과 정태성을 나누어 균형을 맞추었으며, 인구이동은 국제화 시대임을 감안하여 국내이동과 국외이동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족부문에서는 가족과 가구관련 통계를 분리하였으며, 여성가구주 중 특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편모가구주, 독거노인가구주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가족관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주관적 지표를 추가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공교육의 부실화, 교사의 이직문제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에서의 성차를 볼 수 있는 통계를 제안하였다.

경제활동부문에서는 여성의 실업상태를 보여주는 대안실업률을 제시하고, 비구직사유를 추가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경기구조조정 이후 더욱 심각해진 취업불안정성을 다룰 수 있는 통계와 성별 소득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단순한 기대수명의 연장보다는 건강한 상태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건강수명을 추가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검진 실태 등을 추가하였다.

복지부문에서는 국민의 4대 기본보험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가입률 뿐 아니라 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볼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생활보호’관심영역을 ‘국민기초생활보장’관심영역으로 교체하고, 개별지표의 내용도 보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포함하였다.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육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여성공무원의 분포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보충하였다.

문화 및 정보부문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자의 성별 통계를 추가하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이는 정보화사업의 수혜결과에 대한 성별차이를 파악하는 통계를 제안하였다.

안전부문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를 제안하였으나 현재 제한적인 통계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보고통계와 실제 발생건수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통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통일 후 여성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남북한 비교부문을 신설, 남북한 여성의 현상과 지위를 비교하는 기본 통계를 제안하였다.

국제비교부문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지원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률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을 도모하였다.

『여성통계연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인터넷 「여성통계」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서 모색되었다. 즉 각각에 대한 이용현황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두 매체의 성격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 시스템으로의 전환, 발간형태의 다양화, 통계서비스 및 품질의 향상 등이 제안되었다.

참고문헌

- 강동식(1991), 삶의 질 지표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33집, pp.437~459.
- 김양희·윤혜미(1996), 『여성사회지표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문유경(1999),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문유경·주재선(2001), 『여성보건복지 : 현상과 통계』, 보건복지부.
- 문유경·주재선(2001),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문유경·전기택(2001),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 행정부문』, 여성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8), 『한국의 주관적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II)』.
-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사회지표개발』.
- 한국여성개발원(1986, 19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한국여성개발원(각연도), 『여성통계연보』.
- Carley, M(1983),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 Issues of Policy and Theo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 UN. *Compendium of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1986. New York : UN, 1989.
- _____. *Handbook for National Statistical Data Bases on Women and Development*. New York : UN, 1990.
- ECE/UNDP. “Gender Statistics website for monitoring chang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Joint ECE/UNDP Workshop on Gender Statistics for Policy Monitoring and Benchmarking(Orvieto, Italy, 9~10 October 2000), *Working Paper* No.29., Statistical Commission and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UNDP(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 UN(1995), *The World's Women 1995 : Trends and Statistics*.